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2. 12. 19

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2/12-12/16) 및 전망

<서울외환-USDSP-체결> 2022/10/31 종:1,421.10 ▼0.40 -0.03% 시:1,423.00 고:1,423.00 저:1,419.50

- 12.12일 1,307.2(+5.9): 미 생산자물가 발표 이후 강달러에 상승. 미 11월 생산자물가(PPI)가 예상 밖 오름세 나타내자 상승 출발 후, 위험회피 심리 및 결제 수요에 1313.3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네고 유입과 위안 환율 하락 속 상승폭 일부 반납에 1300원대 재차 진입함.
- 12.13일 1,306.0(-1.2): 미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속 하락. 간밤 뉴욕 연은 미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에 하락 출발 후 중시가 하락 전환하자 1309.5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역외 달러 하락에 연동해 1299.8원까지 저점 낮쳤으나 장 막판 매수세에 레벨 높여 전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
- 12.14일 1,296.3(-9.7): 미 CPI 하방 서프라이즈에 하락. 미 11월 CPI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둔화 확인 속 하락 출발 후 금주 FOMC 점도표 상향 우려와 함께 중국이 경제지표 정례발표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공표로 전환한다는 소식에 낙폭 줄임. 이후 중시 상승폭 확대하자 1290원대 중반으로 하락.
- 12.15일 1,303.1(+6.8): 역외 달러 강세 속 상승. 12월 FOMC 점도표 상향에 글로벌 달러 상승하자 상승 출발 후, 장 초반 네고 유입에 1296.2원까지 저점 낮춤. 이후 중시 하락 및 역외 달러 상승에 연동해 1300원 근저로 상승 후 수급 저리하는 가운데 좁은 등락 이어감.
- 12.16일 1,305.4(+2.3): 강달러에 상승. FOMC 점도표 상향 영향 지속되며 강달러에 전장 대비 상승 출발함. 이후 중시 외인 순매수와 함께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경제 지원 추가 발표 기대감에 위안 환율 하락하자 상승폭 꾸준히 반납 후 전장 대비 소폭 상승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미 생산자물가(PPI)가 예상 밖 오름세 나타내자 강달러에 상승. 11월 CPI 발표와 FOMC 회의 앞두고 물가 우려 커지며 긴축 강화 전망에 따른 강달러에 주초 환율은 1300원대 지지력 유지함.
- 주 중반, 달러-원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확인 속 약달러에 하락. 미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 확인 후 11월 CPI 상승률이 완연한 하락세 나타내자 연준 긴축 우려 완화되며 환율은 추가 하락. 다만 12월 FOMC 앞두고 점도표 상향 우려 속 달러 지지력 유지하며 낙폭은 제한됨.
- 주 후반, 12월 FOMC 점도표 상향에 따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달러-원은 상승. 다만 중국 추가부양책 발표 기대감 속 환율 상단은 제한됨.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지난 주 물가 및 금리결정 등 주요 이벤트 소화 이후 달러 지지력 나타내겠지만, 유로화 반등 및 위안화 지지력에 약보합 예상.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긴축 강화 우려와 함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는 달러에 지지력 제공할 것으로 보임. 다만 위안화는 봉쇄 완화 기대와 감염 확산 우려 혼재된 가운데 7위안선 아래에서 추가 상승 제한된 모습인데, 이는 달러-원 상단 제한 요인으로 판단. ECB 관계자들이 50bp 추가 인상 언급하는 등 매파적 발언 이어지고 있어 유로화 지지력 속 달러화 상승 제한될 듯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05.8	1320.0	1292.0	1305.4	+4.1

예상거래범위

1,280원 ~ 1,320원



엔·유로화 동향 (12/12~12/16)



유로화 동향

- 주초, 11월 미국 CPI에 대한 경계감 속에 ECB와 BOE의 통화정책 강도가 연준 12월 FOMC보다 강경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되며 유로 강세 출발. 이어 미 11월 CPI가 시장 예상보다 낮은 7.1% 증가에 그침에 따라 달러가 급격히 약세 전환한 영향으로 유로 강세 이어진 양상
- 중반 들어, 12월 FOMC가 직전 CPI 결과를 반영한 50bp 인상에 그친 가운데 '23년 점도표를 상향하며 신중한 매파 성향을 보였음에도 시장에 대한 충격이 다소 제한되며 유로화는 강세 이어진 국면
- 후반 들어, ECB와 BOE가 각각 인플레이 대응을 위해 50bp 인상을 단행했지만, 연준의 행보가 가장 매파적이란 시장 인식에 달러 강세 전환 속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에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행보가 이어짐에 따른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 마감

엔화 동향

- 주초, 11월 미국 CPI와 FOMC에 대한 경계감 속에 미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을 반영하며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미 11월 CPI의 급락을 반영한 미 국채금리 큰 폭 하락으로 엔화는 강세 흐름으로 전환
- 중반 들어, 12월 FOMC에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을 상향했음에도 그 충격이 제한되며 엔화는 하락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ECB와 BOE의 50bp 금리인상에도 연준의 긴축적 매파 성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을 반영하며 엔화는 상승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글로벌 통화시장의 주요 이벤트들이 종료되면서 달러화의 혼조 영향에 따라 엔화는 소폭 강보합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530	1.0735	1.0506	1.0593	+0.0062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6.7	138.1	134.5	136.7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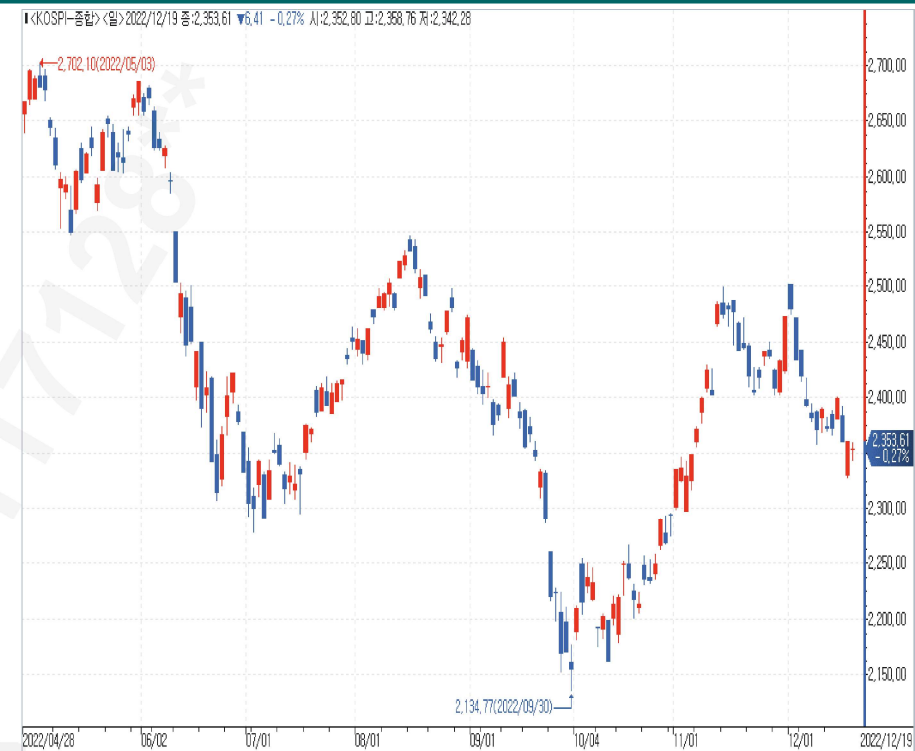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12~12/16)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11월 미 CPI와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미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국고채 금리도 연동 흐름 속 출발. 이어 국고채 금리 혼조세 다소 이어진 양상
- 중반 들어, 미 11월 CPI 지표가 시장 예상을 하회한 7.1% 증가에 그치면서 국고채 금리 강제 재료로 작용,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3.4%를 하회
- 후반 들어, 11월 CPI 감소에 따른 FOMC의 50bp 금리 인상에도 '23년 점도표의 상향 조정 속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연준의 신중한 매파 성향 반영하며 단기구간 중심으로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ECB와 BOE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게 고려된 가운데 미국 11월 소매 판매 부진 영향과 기재부의 공식 경기둔화 언급 등으로 장기 구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며 수익률커브의 평탄화 현상 강화 속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코스피의 뚜렷한 방향성 요인 부재 속에 11월 미 CPI와 FOMC에 대한 경계감,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리오프닝 기대 약화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짙은 물가 지표 관망 속에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하락 지속
- 중반 들어, 미 11월 CPI가 시장 예상을 밑도는 7.1% 증가에 그치는 영향이 코스피에 온풍으로 반영되며 상승 전환
- 후반 들어, 12월 FOMC가 전일 CPI 감소에 따라 시장 예상 50bp 금리인상을 단행했음에도 최종 금리 수준 상향 등 신중한 매파 성향을 보인 가운데 중국 코로나 사망자 확산 등에 따른 경기 우려 등이 복합화하며 코스피 약세를 견인. 이어 주 후반, 연준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강경한 긴축 의지 지속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영향이 투자심리를 크게 짓누르며 큰 폭 하락 마감